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5
2025.12.08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영구 탄소 제거 위한 중앙 구매·재판매 플랫폼 설립 계획 발표
- 세계은행, “제6.2조가 글로벌 탄소제거(CDR) 를 가속할 것”
- 독일, CDR 프로젝트 확대·크레딧 구매에 대규모 자금 배정
- EUA 시장, 2034년물 상장 앞두고 Phase 5 선물 첫 체결
- 가나·스위스, 조리기구 보급과 ITMO 거래 연계한 감축사업 추진
- 태국, 탄소세·ETS·CBAM 포함한 기후변화법 전면 승인
- 대만-파라과이 Article 6 로드맵 공개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영구 탄소 제거 위한 중앙 구매·재판매 플랫폼 설립 계획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 제거 (CDR) 프로젝트의 수요 및 도입 확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매자 클럽 (Carbon Removals Buyers’ Club)’을 EU 기업 외 해외 기업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글로벌 민간 수요를 결집하고 CDR 프로젝트 전개를 촉진해 영구적 탄소 제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

EU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과 클럽 구성 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CDR 자금 조달을 EU 예산 외 민간 및 회원국 기여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한편 여러 연구기관은 최소1,000년 이상 저장 가능한 영구적 탄소 제거 만을 대상으로 하고, CDR이 배출 감축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포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EU에 제안, 이는 향후 EU의 영구 제거 규제 체계 설계에 참고될 전망



세계은행, “제6.2조가 글로벌 탄소제거(CDR)를 가속할 것”

세계은행이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제6.2조를 활용 시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제거 기술을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BECCS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DACCS (직접공기포집·저장)와 같은 공학 기반 CDR 기술은 바이오매스와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좋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경쟁력을 가지며, 선진국은 이 제거량을 ITMO 형태로 구매해 자국 배출 감축에 활용할 수 있음.

다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CDR 비용과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NDC에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어려움을 겪음. 그럼에도 최근 브라질, 인도, 케냐에서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는 추세

보고서는 CDR 시장 확대를 위해 시범 구매 제도가 필요하며, 확립된 기술과 초기 기술을 구분하는 2개의 트랙으로 구성해 하나는 구매국의 NDC 달성을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 NDC에는 미포함되는 성과 기반 금융 방식으로 초기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 CDR 프로젝트 확대 · 크레딧 구매에 대규모 자금 배정

독일이 2026년 연방 예산을 승인하며 2026~2033년에 걸쳐 총 5억 유로 (약 8,600억 원) 규모의 탄소 제거 (CDR) 투자에 나섬.

2026년 예산에는 프로젝트 개발, CDR 크레딧 구매, 토양 탄소 저장 강화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항목들이 포함

독일 정부는 CDR 전용 예산 항목과 제거에 초점을 둔 신규 정부 부서 설립을 병행하며 장기적 CDR 전략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CDR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

한편, 독일은 EU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완화 문제, 그리고 건물 에너지법 개정과 관련해 EU ETS2와의 정합성을 요구하는 등 EU 기후·에너지 정책 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CDR 전략과 함께 국가의 기후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설정하려는 신호를 보임.



EUA 시장, 2034년물 상장 앞두고 Phase 5 선물 첫 체결

유럽에서 처음으로 Phase 5 EUA 선물 계약이 거래소에서 체결

해당 거래는 11월 27일 EEX에서 이루어졌으며 Shell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 가격 및 거래 상대방 정보는 미공개

EU는 2031년 시작되는 Phase 5 설계를 위해 ETS Directive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완료될 예정

EEX는 현재 2033년까지의 EUA 선물을 상장하고 있으며 2034년물도 상장 직전에 있는 상황. 이번 거래는 Phase 5 시장 형성을 향한 첫 실거래 신호로 평가



가나·스위스, 조리기구 보급과 ITMO 거래 연계한 감축사업 추진

가나와 스위스가 Article 6.2 기반 청정 요리 프로젝트 두 건을 승인하며 전기 조리기구와 개선된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사업이 시작

두 프로젝트는 각각 가나 전역의 전력망 연결 가구에 전기 조리 기구를 보급하는 ‘BPTEC (Building Pathways to Electric Cooking)’ 프로그램과 전력망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개선된 쿡스토브를 보조금 가격으로 제공하는 ‘RCCTIC (Reducing Charcoal Consumption Through Improved Cookstoves)’ 프로그램

이 두 활동은 가나의 국가 기후 목표 대비 추가적인 감축으로 인정되며, 공기오염 저감 및 연료 효율 개선 효과도 기대됨.

BPTEC와 RCCTIC를 통해 2025~27년에 걸쳐 약 24.5만개의 전기 조리기구와 17만개의 개선 쿡스토브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약 100만명의 가나인들에게 혜택을 줄 전망

필요한 초기비용은 스위스 Klik 재단과의 ITMO 거래 수익으로 충당해 가구 부담을 줄이는 구조

가나는 이미 Article 6.2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는 유일한 호스트 국가로, 탄소시장 제도 구축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



태국, 탄소세·ETS·CBAM 포함한 기후변화법 전면 승인

태국이 탄소세, 국내 ETS, 탄소크레딧 거래 체계를 포함한 기후변화법을 공식 승인하며 국가 차원의 탄소시장 인프라 구축에 돌입

탄소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기후변화 정책위원회’와 탄소 관련 재원을 관리하는 ‘국가 기후기금’을 신설. 또한 CBAM형 가격제도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 EU 방식의 탄소 규제와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힘.

태국은 2035년까지 47%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NDC를 제시한 상태로 Article 6 기반 국제거래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6.2 협정, 스위스와의 최초 ITMO 거래 등 이미 여러 국제협력을 선도 중

정부는 ETS·CBAM·탄소세 운영을 위한 규칙 마련에 착수했고 순배출제로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에 돌입



대만 - 파라과이 Article 6 로드맵 공개

파라과이와 대만이 Article 6 기반 탄소시장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전기버스 전환과 산림복원이 초기 핵심축

조성된 산림은 헥타르당 약 10톤의 감축을 창출하고 크레딧 가치는 15~40달러 (약 2.2만 원~5.8만 원)수준으로 추정

동 감축량은 대만이 도입 예정인 탄소부과금 제도에서 최대 5%까지 국제단위를 인정하는 구조와 연계될 전망

파라과이는 대만 탄소거래소와의 국경 간 거래를 위해 디지털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계획이며, 로드맵에는 기술회의, 장관급 교류, 공동 숲 조성 등 지속적 협력 구조가 포함

대만은 파리협정 비당사국임에도 양자 협력 방식을 통해 자국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크레딧 확보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